

“광주시 제2순환도로 맥쿼리 운영권 회수해야” “한·중 FTA 불공정...탄소섬유 중국수출 타격”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
이형석·송갑석 국회의원 지적

광주시 “맥쿼리 위한 졸속협상
공익처분 법률적 검토하겠다”
“한·중 FTA 후속협상 통해
탄소섬유 업체 지원 강화될”

광주일보가 연속보도(2018년 12월 3일~2019년 3월 5일)하며 감사원 감사를 이끌어낸 광주시와 맥쿼리한국인프라투자공사(이하 맥쿼리) 간 불합리한 광주순환도로 협상 문제와 관련, 이용섭 광주시장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밝혀 주목된다. 이와 함께, 한중FTA의 불공정한 관세비율로 인해 국내 탄소섬유 업체가 대중국 수출 시 타격을 입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 의원은 22일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 의 광주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광주시는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시행사와 협상 과정, 내용을 전면 재조사하고 공익 처분으로 운영권을 회수해야 한다”면서 “협상이 브로커의 농간으로 험세 낭비, 시민 편익이 크게 훼손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는 2001년과 2004년 제2순환도로 1구간을 28년간, 3-1구간을 30년간 관리·운영하기로 광주시와 협약을 했다. 도로 개통 시 추정 통행량을 과다 설정하고, 실제 통행량이 그 85%에 미달하면 광주시가 지원하도록 한 것이다.

이에 광주시는 해마다 재정을 보충해줘야 하는 부담을 줄이기 위해 민선 5기 들어서는 맥쿼리에 소송을 제기하며 강경하게 맞서기도 했지만, 민선 6기에서는 돌연 소송을 포기하고 협상에 응해 2016년 말 변경 협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1014억 원을 절약할 수 있다는 시의 설명과는 달리 1구간에서의 맥쿼리 수익은 2018년 오히려 477억원으로 급증했다.

이 의원은 “협상안을 검증한 전남대 산



이용섭 광주광역시장이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행정안전위원회의 광주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대전광역시, 울산광역시 합동 국정감사에 출석해 증인선서를 하고 있다.

학협력단의 비공개 검증보고서, 법원 판결문 등을 분석한 결과 협상은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졸속 협상”이었다고 평가했다.

이 의원은 ▲투자수익률(9.8%) 과다 책정 ▲투자금액 불풀리기 ▲시행사 부담 감 법인세의 광주시 대납 ▲1000억원 절감 효과의 허구성 ▲1·2심 승소에도 대법원 상고포기 이유 일부 거짓 등 5가지 쟁점을 광주시 국감에서 집중 질타했다. 당시 광주시에 5000억원 절감안을 제시한 한 회계 전문가는 브로커에 의해 협상단에서 배제됐고, 해당 브로커는 지난 6월 광주지법 1심 재판 당시 법정 구속됐다.

이에 이용섭 광주시장은 “수익률이 과다하고, 재정 지원금은 불풀러지고, 시에서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등 문제가 지적되고 있다”며 “법무부 산하 정부 법무공단에 의뢰한 타당성 조사 결과가 나오면 공익 처분 여부를 판단하고 재구조화 협상과 관련한 사람들의 법률적 처분을 깊이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법무 공단 타당성 조사는 2018년 10월 시작돼 브로커 관

련 재판으로 중단됐다가 지난 7월 재계, 조만간 그 결과가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이 시장은 “취임 후 협상과정을 들여다 봤다. 1000억원의 시 재정부담을 가져왔다. 투자 수익률과 과다 계상, 법인세까지 부담하는 것은 문제라고 본다”면서 “광주시는 법무부 산하 법무공단에 타당성 용역을 요청했다. 용역 결과를 바탕으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을 면밀하게 다시 들여다 보겠다. 이와 관련된 사람이 있다면 법률적 처분도 하겠다”고 답변했다.

이날 국감에서 민주당 송갑석(광주 서구갑) 의원은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제출받은 ‘한·중 탄소섬유 무역수지’에 따르면, 한·중간 탄소섬유 무역수지가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한국과 중국간 탄소섬유 무역수지는 2015년 한·중 FTA 발효 직후인 2016년 1382만달러로 전년대비 22.9% 떨어졌다. 이후 2018년에 1881만 달러까지 회복했지만 지난해 1381만달러로 다시 26.6% 감소했다. 2015년 한중FTA 발효한 이후 가장 낮은 수치였다.

한중 FTA 발효 무역수지 흑자 폭이 줄어드는 이유는 관세 때문이다. 한국산 탄소섬유 및 관련 제품의 중국 수출분에 대해서는 관세 17.5%를 그대로 유지하기로 하고, 한국 수입분에 붙는 관세 8%는 FTA 발효 즉시 철폐하는 것으로 결정했기 때문이다.

송 의원은 “중국의 탄소섬유 시장은 연평균 11%씩 성장하고 있으며 2017년 생산량은 235만톤을 기록했지만, 불공평한 한·중 FTA로 인해 국내기업들이 큰 손해를 보고 있다”며 “산업부는 FTA 후속협상을 통해 중국과 동등한 교역환경을 조성하고, 국내 탄소섬유 업체가 세계시장에 진출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2011년부터 2015년까지 971억의 예산을 투자해 전북에 탄소밸리를 구축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상 강화 품목인 탄소섬유에 대해 정부는 생산라인 증설 등 투자액을 포함해 2028년까지 1조원을 추가 투자할 예정이다.

/오광록 기자 kroh@kwangju.co.kr

광주·전남 3명 독감백신 접종 후 사망

‘노환’ ‘심근경색’ 등 판정
보건당국, 백신 연관성 조사

광주와 전남에서 고령자 3명이 인플루엔자(독감) 백신 접종 후 잇따라 숨졌다. 이들은 각각 민간병원에서 ‘노환’과 ‘심근경색’ 등으로 1차 사망원인 판정을 받았으나 보건당국은 독감 백신 접종과 사망 사이 연관성을 조사 중이다.

〈관련기사 2면〉
광주·전남을 비롯한 전국에서 독감 백신 접종 후 사망 사례가 속출하며 불안감이 번지자, 보건당국은 “백신 접종과 사망의 연관성이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독감으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안팎으로 접종 중단은 고려하지 않고 있다”는 입장을 내놨다.

22일 광주시와 전남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2시께 광주 북구에 거주하는 80대 여성 A씨가 독감백신 접종 3일만에 숨졌다. A씨는 지난 19일 독감백신 중 SK바이오사이언스플루4기를 접종받았으며, 이날 새벽 2시께 호흡곤란과 의식불명으로 전남대학교 병원으로 후송됐다. A씨는 고혈압과 당뇨, 심장질환 등을 앓고 있었다.

순천에서도 이날 독감 백신을 접종한 80대 남성 B씨가 숨졌다. B씨는 지난 19일 오전 8시 50분께 녹십자 생산 독감 백신을 접종했고 사흘이 지난 이날 오전 7시 30분께 집에서 쓰러진 채로 가족에게 발견됐다. 119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진 그는 오전 8시 30분께 사망했다. 사망 판정을 내린 병원 측은 B씨 사인을 심근경색으로 의심된다고 판단했다.

앞서 지난 20일 낮 12시 30분께에는 목포에 사는 90대 여성 C씨가 숨졌다. C씨는 앞서 이날 오전 9시께 목포의 한 병원에서 독감 백신 접종을 받았다. 귀가 후 이상 증세를 느낀 C씨는 가족에 의해 병원으로 옮겨졌고 접종 3시간 30분 만에 숨졌다. 당시 의료진은 사인을 노환으로 판단했다. C씨는 심장질환 등 기저질환을 앓고 있었다고 전남도는 전했다. C씨가 접종한 백신은 녹십자 지씨플루쿼드리밸런

트 보건당국이 동일 접종기관,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 204명에 대해 이상 반응을 조사한 결과 특이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전국에 걸쳐 이날 오후 6시 현재 27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면서 일각에서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환자감사에 출석,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감으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했다. 장성군 소재 요양병원 입원을 위해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거주 여성으로, 전남 179번째 확진자다. 이 환자는 20일 입원과 동시에 1인실에 격리돼 있었고 의료진도 보호복을 착용하며 환자를 돌봐왔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광주에서도 이 여성과 접촉한 북구 거주 2명과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2명 등 4명이 신규 확진돼 총 누적확진자는 507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22일 오전 서울 한국건강관리협회 건강증진의원 서울동부지부에서 한 시민이 독감 예방 접종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트 보건당국이 동일 접종기관, 동일 제조번호 접종자 204명에 대해 이상 반응을 조사한 결과 특이점은 파악되지 않았다.

독감 백신 접종 후 전국에 걸쳐 이날 오후 6시 현재 27명이 숨진 것으로 보고되면서 일각에서 백신 접종 중단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제기된 것과 관련해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중환자감사에 출석, “독감 자체로 인한 사망자가 1년에 3000명 가까이 되는 것으로 추정된다”며 “(독감으로) 어르신·고위험군에서 폐렴이나 다른 합병증이 생길 수 있고 독감으로 기저질환이 악화해 사망할 수 있으므로 반드시 접종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주장했다.

이날 광주·전남에선 코로나19 확진자도 발생했다. 장성군 소재 요양병원 입원을 위해 입원 전 검사에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거주 여성으로, 전남 179번째 확진자다. 이 환자는 20일 입원과 동시에 1인실에 격리돼 있었고 의료진도 보호복을 착용하며 환자를 돌봐왔다고 전남도는 설명했다. 광주에서도 이 여성과 접촉한 북구 거주 2명과 쿠웨이트에서 입국한 2명 등 4명이 신규 확진돼 총 누적확진자는 507명으로 늘었다.

/박진표 기자 lucky@kwangju.co.kr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5명 사망 곡성 산사태 인재 맞다 ▶6면

복스 ‘다시, 신화를 읽는 시간’ ▶14-15면

광주FC, 마지막 홈경기는 축제로 ▶18면

Passion [열정], Vision [꿈], Truth [진리] 로 충만한
기독교명문대학
광신대학교 로 오십시오!!
입학문의 학부 062)605-1114 대학원 605-1115

NEW
RETINOL EXPERT
RETINOL 0.1%

2weeks
고함양 고함양 케어(레이저) 분자당
원자 주름 용출 단 2주만에 개선
IOPE LAB

슈퍼레티놀 단 2주만에 주름잡다

| 아이오페 레티놀 엑스퍼트 0.1% |

주름을 위한 당신의 노력들, 얼마나 효과가 있었나요?
이제, 주름보다 강한 슈퍼레티놀로
확실한 주름 개선 효과를 느껴보세요

레티놀은 아이오페

IOPE

*인·40-50세 성인 여성(평균 나이 2019.08.16 ~ 10.17 10명)의 피부임상실험결과
고려사항: 080-023-5454 | www.iope.com